

11월 7일~14일, 전주에서 '2007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개최

인류 역사 최초, 아시아·아프리카 작가들이 소통하는 한자리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총감독을 맡은 이영진 시인과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 이집트 소설가 '살와 바크르', 인도 소설가 '뤼스킨 본드', 남아프리카 시인 '바롤롱 세보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 '루이스 옹코시', 세네갈 소설가 '켄 부글', 동부아프리카 소설가 '압두라만 와베리' 등 52개국 82명의 아시아·아프리카의 문학 대가들이 11월 7일 전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 백낙청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조직위원회 작가만 123명이고, 국내 작가 159명이 초청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문학 페스티벌이다.

총감독을 맡은 이영진 시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작가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건 인류사 이래 처음"이라면서, "문학은 가장 내밀한 소통방식이며 문학작품이 교환됨으로써 결국 문화의 근원이 교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1955년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대륙 작가대회가 결성된 후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해체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다. 동일한 맥락은 아니지만 이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대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기 보다 미학적, 정서적, 생태학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세계문학은 그동안 유럽이 주도해 왔다. 1920년대 노벨 문학상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수상국가의 반열에 든 시기가 1930년, 라틴아메리카는 1945년, 아시아 문학은 1968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수상하면서였고, 아프리카문학은 1986년 월레 소잉카, 아랍문학은 1988년 이집트의 나집 마흐푸즈가 수상하면서 점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학이 세계 문학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영진 총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문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류문화의 미래를 확장하는 일에 전방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미를 거치지 않은 공동시장 형성 등 세계 출판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학을 통한 문학컨텐츠의 발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의 심장으로서 들어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전주는 오랫동안 '문향'으로서 독특한 지역적 색채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현재 광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도시인 아시아문화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영진 총감독은 "향후 아시아의 문화를 코디네이션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광주처럼 전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학이 소통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지대로 유형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은 아시아·아프리카 작가 연대회의 등 학술행사를 비롯해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카페'가 열리고, 참여 작가 국가와 출판사 등 부스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의 문학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문인들의 소장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책 보내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행사로 Lotus상 수상 작가 중 생존해 있는 팔레스타인의 마흐무드 다르위시, 나이지리아의 응구기와 시용호, 김지하 작가 대담을 통해 20세기 양 대륙의 문학활동을 통시적으로 조망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한 행사로 문학기차, 문예백일장, 문학교실 등이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한겨레**